

# 사거리 문구점의 마녀 할머니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해성이, 돌아가신 엄마가 그리운 정우, 오빠와 동생 사이에 치여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은지, 외로운 아이들에게 ‘마녀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녀’보다 ‘할머니’에 더 가깝다. 행운의 마녀 할머니는 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 슬프거나 아픈 순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다. 누룽지 죽처럼 화려한 맛은 나지 않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준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진짜 나타날지 모른다. 행운의 마녀 할머니가.

한정기 글 국지승 그림

주제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격려하기
권장 차시	12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관계, 비밀, 도움, 마음 나누기, 소원, 소통,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마법, 격려
교육 과정 연계	<b>국어</b>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4도04-02] 참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느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
	<b>미술</b>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4미03-03]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작성	파주 대성동초등학교 박지숙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 작고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마법

살아가면서 마법이 일어났으면 하는 순간은 꽤 많다. 점수가 엉망으로 나온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야 할 때, 지각 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통학버스를 놓쳤을 때,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를 너무 보고 싶을 때 등등 수도 없이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쯤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라는 말 그대로 좀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한정기 작가는 마법의 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마법이 이뤄질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한다. 진짜 가능한 일일까? 《사거리 문구점의 마녀 할머니》는 해성, 정우, 은지 세 아이에게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이야기이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해성이, 돌아가신 엄마가 그리운 정우, 오빠와 동생 사이에 치여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은지. 세 아이는 저마다 아픔과 결핍이 있다. 그런 세 아이에게 나타난 마녀 할머니는 ‘마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짜잔~ 눈이 휘둥그레지는 마법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마녀’보다 ‘할머니’에 더 가까운 행운의 마녀는 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 슬프거나 아픈 순간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준다. 마녀 할머니는 “간절하고 슬픈 마음이”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소외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슬픈 아이들에게 나타나 그리 놀랍지 않지만 따뜻한 마법을 일으키는 행운의 마녀 할머니는 사거리 문구점의 요상한 주인아줌마가 파는 인형이었다. 나중에 세 아이가 찾아갔을 때 주인아줌마는 문구점을 넘기고 다른 데로 떠나고 없었다. 주인아줌마는 행운의 마녀 인형을 다 챙겨갔다고 한다. 세상 어딘가에 있는 작고 외로운 이들에게 마법을 선물하러 떠났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진짜 나타날지도 모른다. 행운의 마녀 할머니가.

## ■ 학습 목표

-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며 들을 수 있다.
- 책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며 인물의 마음과 처지를 짐작하여 나의 경험과 연결 지어 글을 쓸 수 있다.
-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 글을 읽고 감동을 느끼며 책 속 내용을 요약하며 쓸 수 있다.
- 글을 읽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책 속 인물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담은 인형을 만들고,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이 책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모든 삶이 그렇듯 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조심스레 잡아준 손이 힘이 된다. 이 책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든든한 지원자 덕분에 또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 길이 보인다는 것!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동화책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스스로 성장할 좋은 기회를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업 준비물** 스크래치 페이퍼, 종이, 채색 도구, 슈링클 등 만들기 재료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b>&lt;표지, 삽화&gt;</b> - 내용 예상하기 - 단어 마인드맵 - 지우개 지우기 - 삽화 이야기 나누기	2차시
읽는 중	<b>&lt;생각보다 재미있는 일&gt;</b> - 경험 나누기 -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 - 매녀 할머니 그려보기 - 질문 만들기	2차시
	<b>&lt;엄마를 딱 한 번만&gt;</b> - 핫시팅 - ○○의 향기 - 토닥토닥 격려하기	2차시
	<b>&lt;마법 같은 딱 그런 순간&gt;</b> - 주인공의 마음 들여다보기 - 나를 힘 나게 하는 음식은? - 질문 만들기	2차시
	<b>&lt;우리 셋만 아는 비밀&gt;</b> - 인형을 선물할게	1차시
읽은 후	-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매녀 인형 고민 상담소 - 매녀 할머니 인형 만들기	3차시

# 읽기 전

## 1. 내용 예상하기

- 앞표지를 보여주며 책 제목과 지은이, 글쓴이,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 앞표지를 보니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문구점에 마녀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만 하는 문구점인 것 같아요.  
마녀 할머니가 있다고 하니까 왠지 밤에만 여는 문방구 같아요.
- 제목이 사거리 문구점의 마녀 할머니인데, 마녀 할머니가 누구일까요?  
(예)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요. 검은 머리인데? 낮에는 젊은 사람이었다가 밤이 되면 원래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해 봅시다.  
(예) -사거리 문구점에 밤만 되면 저 아줌마가 마녀 할머니가 되어서 마법 친구들이 놀러 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 2. 단어 마인드맵

- 제목을 보면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함께 마인드맵을 해 볼까요?
-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해 보고 짝과 함께 또는 모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3. 지우개 지우기

- 동화책 앞표지를 본 후 열다섯 개의 낱말 중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네 개의 낱말을 골라 표시(×)를 해 봅시다.

마녀	행운	사슴벌레	마법	게임기
여행	할머니	도깨비	인형	비밀
할아버지	요리	빛자루	우산	문구점

<del>마녀</del>	행운	<del>사슴벌레</del>	마법	<del>게임기</del>
<del>여행</del>	할머니	<del>도깨비</del>	인형	비밀
할아버지	요리	빛자루	<del>우산</del>	문구점

Tip. 제시된 낱말을 고민하면서 동화책의 내용을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개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모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우개 지우기를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왜 이 낱말이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지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표지를 자세히 보고 책 내용을 예측하다 보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며 책을 읽을 때 훨씬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지우기의 정답은 게임기, 여행, 도깨비, 우산입니다.

### 4. 삽화 이야기 나누기

#### 6~7쪽 삽화 보며 이야기 나누기

- 그림을 보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예)-무서워요. 무언가 나올 것 같아요.
- 만약 내가 이 장소에 있다면 이 문구점에 들어갈 것 같나요?  
(예)-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예)-저는 궁금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예)-할로윈 파티를 할 것 같아요.  
(예)-비밀 모임을 할 것 같아요.
- 책 제목의 '사거리'라는 낱말의 뜻을 알 것 같나요?  
(예)-네 길이 네 개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길이 네 개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 읽는 중

###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

#### \* 선생님이 동화책 읽기

-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16쪽까지는 선생님의 목소리로만 읽어줍니다.
- 16쪽 할머니 상상하기 이후 같이 읽기 합니다. (온책읽기일 경우)

## 1. 경험 나누기

### ■ 나만의 00살이 할 수 있는 것 생각 나누기

\* 12쪽 “열한 살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란다.”

- ‘앞가림’이란 무슨 뜻일까요?
- “00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나요?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을 청소할 수 있어요.

### ■ 가족, 친척이 해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 (예)-외할머니가 해주신 삼계탕이요. 할머니 댁에 가면 늘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 맛이 가장 좋아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요. 힘들 때 엄마가 해준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힘이 불끈 솟아올라요.

### ■ 행운의 마녀에게 배우고 싶은 집안일이 있나요?

(예)-저도 해성이처럼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 ■ 38쪽 “마법이 별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마법이지!”

- \* 마법 같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
- \* 나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나요?  
(예)-힘이 세져서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예)-그림 실력이 좋아져서 우리 가족을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요.

## 2. 할머니 그려 보기

- 16쪽 책 속 할머니를 묘사한 부분을 읽고 내가 만약 동화책 삽화가라면 어떻게 그릴지 상상하며 표현해 봅시다.

Tip. 일부분만 글로 제시하거나 읽어주고 상상한 것을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글 속의 색깔, 무늬, 옷차림(반점) 등을 자세히 듣거나 관찰하여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그림을 같이 살펴보고 동화책 속 삽화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6쪽  
머리엔 삼각 스카프 같은 수건을 쓰고, 짙은 초록색 바탕에 알록달록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묶은 자루처럼 볼록하게 부풀어 발목까지 내려온 흰 속바지에 빨간 양말이라니! (중략) 머리에 쓴 스카프 밑으로 보이는 하얗게 썬 머리카락이나 구부정한 등은 분명 할머니데 차림새는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 3. 나만의 요리 레시피 /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

-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나 만들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29쪽의 4컷처럼 요리법을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만들고 싶은 음식:	

- 해성이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나요? 이유도 적어봅시다.

해드리고 싶은 음식: 외할머니표 고기만두	
[그림으로 그리기]	[해드리고 싶은 이유]
	어릴 때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만두가 정말 맛있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그 맛을 못 낸다고 아쉬워하셨다.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표 고기만두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추억의 선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

## <엄마를 딱 한 번만>

### 1. 핫시팅하기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 · 핫시팅 : 주인공을 초대해서 인터뷰하기

- 주인공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기 : 나도 그런 적 있었어(공감) + 힘내!-칭찬 샤워 해주기

(예) ·나도 그런 적 있었어(공감): 주인공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기

(예) ·힘내!- 칭찬 샤워 해주기: 반 친구 중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힘내’ 하면서 칭찬샤워 해주기



Tip. 그날의 주인공을 한 명 뽑아서 칭찬샤워 해주기. 칠판을 등지고 앉아 있으면 칠판에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시. 또는 애벌레처럼 등에 종이 붙여서 서로 칭찬하는 말을 적어주고 머리 위에 올려서 인증 샷을 찍어주어도 좋다.

### 2. ○○의 향기

- 63~65쪽에 ‘엄마의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엄마 또는 우리 가족의 향기를 설명해 볼까요?

( 엄마 )의 향기: 달짝지근한 참기름 냄새 끝 빈대떡 기름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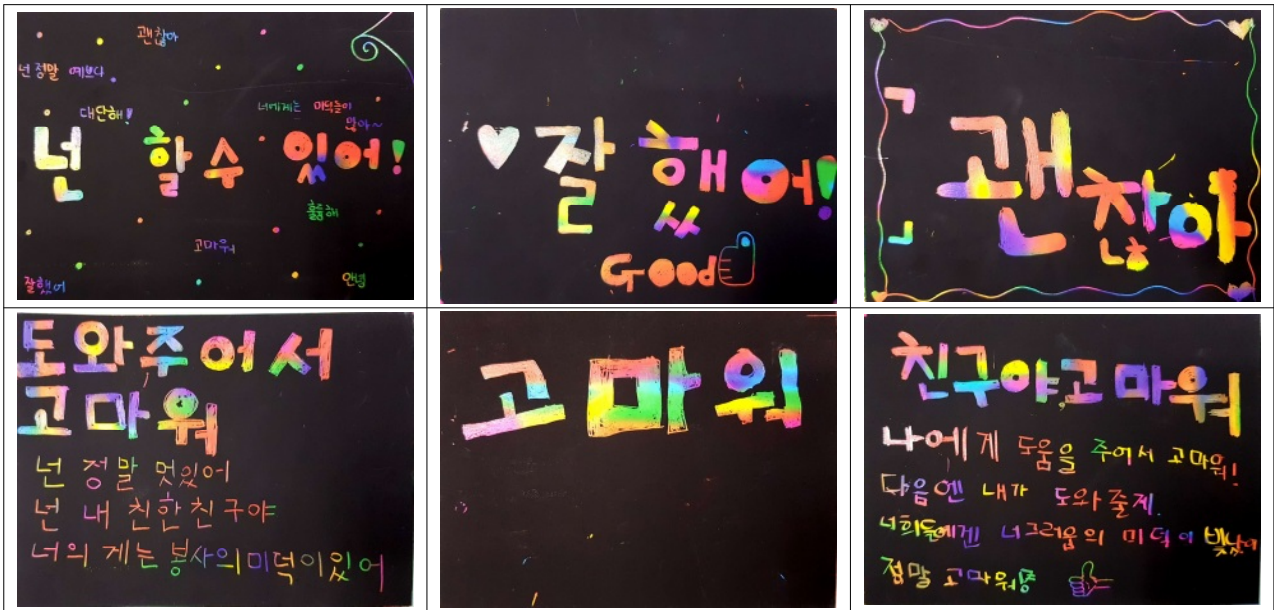
[설명]

(예) 엄마는 어릴 때 분식집을 하셨는데 기본 반찬으로 항상 부추전(빈대떡)을 해주셨다. 대학생들 상대로 하다 보니 밥이라도 든든히 먹으라고 부추전을 항상 많이 부쳐 주셨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늘 빈대떡을 부칠 때 나던 기름 냄새와 김밥을 말고 발라주셨던 참기름 냄새와 단무지 냄새가 섞인 냄새가 났다.

### 3. 토닥토닥 격려해주기

- 정우는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들도 많았는데, 그런 정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69쪽 마녀 할머니가 정우에게 ‘정우, 너 오늘 아주 잘했어!’라고 말했는데, 만약 나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 격려의 말을 듣고 싶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토닥토닥 격려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스크래치 페이퍼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Tip. 단순히 만드는 작업만이 아니라 각자 만든 카드를 서로 만나서 읽어주고 교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나 신나는 음악을 깔아놓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서로 읽어주고 교환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격려 카드가 나만의 격려 카드가 되는 활동도 좋습니다.





## <마법 같은 딱 그런 순간>

### 1. 주인공의 마음 들여다보기(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해 봅시다.
-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적 있었나요?
-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 부모님이 형제와 나를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눈물이 나온 경험이 있었나요?

### 2. 나를 힘나게 하는 음식은?

- 슬프거나 힘들 때 먹으면 힘이 났던 음식이 있었나요?
- 슬픔의 종류에 따라 음식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언제 힘이 나는지 적고 나누어 봅시다.

	<p>(예) 95쪽 · 슬플 땐 레몬즙을 넣은 이런 상큼한 음료가 최고지!</p>
<p>(예) 회 · 저는 몸이 힘들 때 신선한 회를 먹으면 정말 힘이 나요.</p> 	<p>(예) 마카롱 · 저는 기운이 없을 때 달달한 마카롱을 먹으면 기운이 나서 다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어요.</p> 

### 3. 질문 만들기

-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관계가 좋은 걸까요?
-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족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하거나 참아야 할까요?
- 가족과 문제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관계가 좋은 걸까요?

Tip 학생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질문 만들기(하브루타)를 하면서 좋은 질문을 만들고 공유해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란 어떤 질문인지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 <우리 셋만 아는 비밀>

### 1. 인형을 선물할게

- 사거리 문구점 아줌마는 누구였을까요?
- 행운의 마녀 인형은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판다고 했는데 내 주변에 마녀 인형이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친구가 있을지 이유를 적어볼까요?

• 친구+이유	• 선물할 마녀 할머니 인형	• 친구에게 줄 마녀 할머니의 마법 3가지
<p>(예)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는 늘 못한다고 말하는 친구</p> <p>이 친구에게 잘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p>	<p>(예)</p>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트사탕처럼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뺏! 뚫어주는 마법을 부려요.</li> <li>★미덕 안경을 쓰고 나의 힘든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위로해주는 마법을 부려요.</li> <li>★내 안에 잠들어 있는 미덕을 깨워주는 마술봉으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법을 부려요.</li> </ul>

## 읽은 후

### 1.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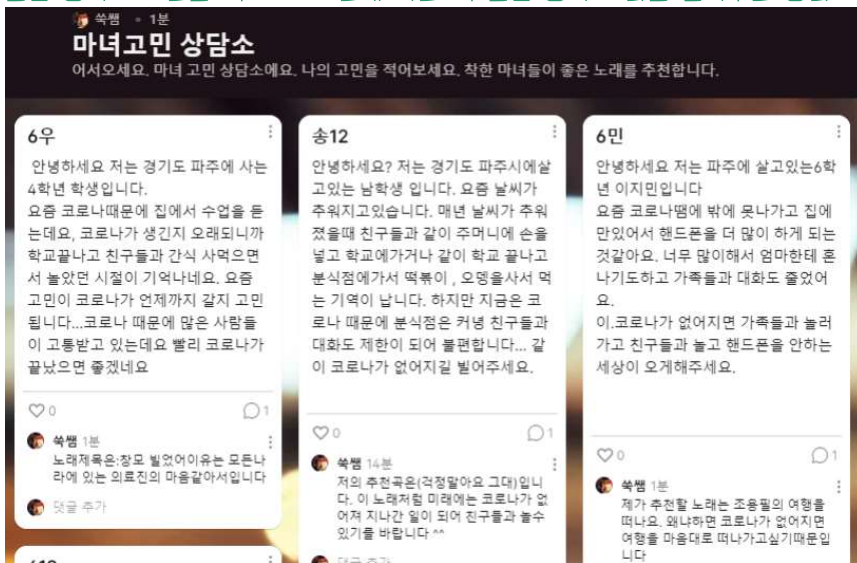
- 마녀 할머니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친구의 이름	(예) 해성이	(예) 진우	(예) 은지
마녀 할머니의 모습 간단히 그리거나 정리해 보기			
인상 깊었던 구절 (마녀 할머니의 말)	(예) 살다 보면 마법 같은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예) 실수하고 바보짓하고 살더라도 엄마가 널 사랑했던 걸 잊지 않으면 돼. 그 사랑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마법이니까.	(예) 누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슬플 때가 있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그런 간절하고 슬픈 마음이 나를 부른 거란다. 잊지 말아라, 너는 이 집에서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친구의 성장/변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모두가 마법 같은 것인 것을 알았음.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됨.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느낌이 가득 차올라 마음이 든든해짐	

## 2. 마녀 인형 고민 상담소

- 내가 다른 친구에게 마녀 인형이 되어주는 고민 상담소를 열어볼까요?
- 패들렛이나 팅킹보드에 익명 고민 상담소를 열고 친구의 고민에 답을 해봅시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음악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Tip. 학생들에게 인터넷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혹 익명 게시판 등이 불편하다면 교실 한 공간을 게시공간으로 만들어서 붙임 종이로 고민을 적고 그 고민에 다른 색 붙임 종이로 답을 달아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 3. 나만의 마녀 할머니 인형 만들기

-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녀 할머니 인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만의 마녀 할머니 인형을 한 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클레이 등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슈링클도 추천합니다)
- 마녀 할머니는 어떤 마법을 부리면 좋을까요? 나에게 위로와 격려 배움을 줄 수 있는 마녀 할머니를 표현해 봅시다.
- 나만의 마녀 할머니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 마녀 할머니 표현하기 (그림)	• 재료 생각하기 -평면으로 표현하기:색연필, 사인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클레이 등	• 마녀 할머니의 마법 3가지
		★  ★  ★



(예) · 저는 젊은 민트 마녀 할머니 인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트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민트 색깔의 옷과 모자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민트 사탕처럼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뺏! 뚫어주는 마법을 부려요.  
미덕 안경을 쓰고 나의 힘든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위로해주는 마법을 부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미덕을 깨워주는 마술봉으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법을 부려요.

